

원희룡 장관, “한-UAE 수소·교통인프라 협력 본격 시동”

- 1.16일 아부다비 교통부 장관 만나 교통·수소 전방위 협력 논의
- 수소도시, 스마트인프라 등 장관급 MOU 3건 체결
- 비즈니스 상담회장 들러 스마트시티 등 우리기업 현지진출 격려

□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방문을 공식 수행 중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16일(일) UAE 아부다비에서 팔라 알 아바비(H.E. Falah Al Ahbabi) 아부다비 도시교통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간 인프라 전반에 관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.

○ 이날 면담은 1월 16일(일) 한-UAE 비즈니스 포럼에 원 장관과 알 아바비 장관이 모두 참석하면서 포럼 현장에서 전격적으로 진행되었다.

□ 한국과 UAE는 탄소중립에 선제 대응하여 수소경제 중심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수소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.

○ 그 일환으로, 양국은 함께 UAE 현지에 적합한 수소충전소 기술을 개발하여 '23년까지 국내 실증을 한 후 '24년부터 UAE에 실증해 나가는 기술개발 및 연구사업*을 진행하고 있다.

* (해외수소기반 대중교통 인프라 기술개발사업)

- '21~'25, 총사업비 340억 원(국비 220억 원), 3년간 국내 실증 후 2년간 UAE 실증
- 교통연구원, (주)한국가스기술공사 등 총 13개 기관·기업 참여

○ 원 장관은 이날 면담에서 이 사업의 UAE 실증을 위해 아부다비 내에 적절한 수소충전소 부지가 선정되고 관련 인허가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알 아바비 장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.

○ 이에, 알 아바비 장관은 동 사업은 사막기후에 적합한 수소생산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으로 평가하면서, 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”고 약속하였다.

- 이날 면담 자리에서 원 장관은 “이번 우리 정상외의 국민 방문 계기로 양국간 40여개 MOU를 체결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협력이 확대되어 기쁘다”며, “국토교통 분야에서도 미래모빌리티, 스마트인프라, 도시내 수소의 생산 생산·저장·운송·활용에 관한 정부간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큰 성과를 거둔 만큼, 앞으로 인프라·교통분야 협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- 한편, 이날 오전 원 장관은 한-비즈니스 포럼장 내 마련된 양국의 기업간 비즈니스 상담회 행사장을 직접 방문하여, 스마트시티 7개 업체*를 비롯한 참가기업을 격려하고 우리기업의 UAE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.

 - * 스마트시티(7개사) : 야놀자, 메가존클라우드(MegazoneCloud), H2O호스피탈리티, 라오나크(Raonark), 에이버추얼(A Virtual), 네이버(Naver), 모노리스(Monolith)

- 국토교통부는 이번 우리정상의 UAE 방문을 통해 수소, 모빌리티 등 첨단 미래 분야에서의 협력기반이 마련되었으며, 이를 토대로 우리 기업의 가시적인 수주 성과 도출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도 다각적인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.

2023. 1. 17.

국토교통부 대변인